

統一新羅 鬼面紋瓦에 關한 研究

-내림새막새와를 중심으로-

박 옥*

A Study on Monster-Mask Tile of Silla

Prk, Auk*

< 目 次 >

I. 序論	2. 盛期
II. 鬼面紋瓦의 本質	3. 後期
1. 鬼의 概念	IV. 鬼面紋瓦의 特性
2. 鬼面紋瓦의 起源과 形象	1. 造形的 特性
3. 부착위치 및 부분명칭	2. 象徴的 意味의 變化
III. 統一新羅 鬼面紋瓦의 特性	V. 結論
1. 前期	

I. 序論

한옥에 있어서 기와가 차지하는 造形的 位置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건축양식에서 가장 특징적 요소를 지니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전통한옥에서 지붕의 구성이 건축에서 매우 비중이 컸으며, 이것은 시대별로 생활의 양상이 달랐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지붕의 구성에는 기본적 기능을 벗어나 최대의 기술적, 예술적인 배려가 배풀어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지붕은 人間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며, 지붕밑에 있으면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느끼며 태풍, 호우만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보호된다고 느낀다. 이러한 자연의 보호를 받기위한 수단으로 天災의 두려움을 벗어나려는 충동으로써 좀더 확실한 보호의 상징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하늘과 관련되어 지붕의 용마루 끝에는 치미,¹⁾ 취두(鷲頭),²⁾ 용두(龍頭) 등의 守護神으로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강사(한국화 전공)

서 강한 상징성을 띤 造形物을 장식하여 없었으며 내림마루 끝에는 鬼面瓦, 곱새기와를, 또 추녀마루 위에는 다양한 人物 및 雜像³⁾ 등을 배치하게 되었다. 이들은 지붕 맨 위에서 頂點을 이루고, 지붕의 액센트적인 역할로서 건물의 위엄의 격을 결정하는 치장적 요소와 함께 벽사 및 火災, 災難으로부터의 보호신적인 造形物로서 전통한옥의 지붕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韓國의 鬼面紋은 그 형상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특징이 잘 나타나는 鬼面紋瓦에 한정하였다. 鬼面紋瓦는 특수기와로서 세부적인 紋樣 등을 통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美術史 및 文樣史적 側面을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1) 지붕에 얹은 기와중 가장 크고 무거운 기와로, 모양은 龍을 잡아 먹고 산다는 전설상의 새(또는 물고기)의 꼬리 형상을 하고 있다. 陽을 뜻하는 봉황의 깃을 상징하며, 화재나 기타 재앙을 쫓는 목적으로 조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 龍을 잡아 먹고 산다는 술개의 머리형상(또는 독수리)인데, 치미, 취두와 같은 이러한 형상은 치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특수한 기와이다. 이러한 기와는 용마루, 내림마루 끝의 막음을 깨끗이 하기위한 수단으로 또는 마름 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그 기원은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 3) 지붕장식의 한가지로 양성(標成)한 지붕의 추녀마루 끝을 말마루로 하고 거기에 여러 짐승모양을 배치하였다. 귀룡자(鬼龍子)라고도 하고 손오공 이하의 권속이라고도 하며, 각 기의 형용은 같은 것이 없고 흠을 빚어 만들어 굽는다.

II. 鬼面紋瓦의 本質

1. 鬼의 概念

‘鬼’는 한자의 表意로 마음의 말에 뿌이 났다는 뜻이며, 사람이 죽어서 骨肉은 땅에 묻히고 피는 물이 되며, 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陰氣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한다. 「人死魂神也」 「神卽魂」이라고도 하며, 金時習의 金鰲神話에서는 「鬼者陰之靈」이라 하고, 李翼의 「星湖僊說」에서도 「鬼也者, 陰之靈, 神也者, 陽之靈」⁴⁾이라하여 鬼神을 陰陽에 대비시키고 있다.

또한 鬼는 도깨비를 한자로 獨脚鬼라 표시하고 있듯이 鬼神 또는 도깨비의 뜻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양의 陰陽說에 바탕을 두고 다시 地域的, 民族的 Shamanism 사상인 「隱顯自在」, 「能傷害人」하는 소위 「도깨비」, 「妖怪」의 觀念이 이입되어 진다고 보아야 하겠다.⁵⁾ 즉,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鬼神이며,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져 사람을 호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험상궂은 일을 많이 하는 존재로 해석되고 있다.⁶⁾

이러한 도깨비는 그 실체를 보거나 입증할 수는 없으나 초인적인 능력과 신비하고神通력을 가지고 있다는 想像的인 概念으로 인하여 민간신앙과 깊이 유착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鬼神에는 天鬼, 地鬼, 山神, 三神, 성주(上樑神), 七星帝釋 등과 같은 주술적 신앙에 관계되는 神도 함께 포함된다. 또한 人間이 죽어서 나타나는 잡귀, 객귀, 유령 등 불가사의 존재를 포괄하여 잡신이라 지칭하여 鬼神과 도깨비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概念이 분명하지 않아 동일하게 쓰여지기도 한다.

조선조 숙종때의 학자인 권오의 저서 「海東雜錄」의 사이매문에서 이때는 山海 陰虛의 氣와 草木土石이 薰梁融結化하여 이매가 되었다고 하였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說話 속에 나타나는 도깨비는 이매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山川草木土石의 精氣가 화하거나 사람이 쓰다 버린 기구가 변하여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民譚에 의하면 헌 빗자루, 부지깽이, 키, 절구대, 체, 기명 등 가정에서 쓰다 버린 물체, 특히 여성이 쓰다 버린 것, 사람의 손 때가 묻은 것, 사람의 피가 묻은 것일 수록 도깨비로 잘 변한다고 하였다.⁷⁾ 이것은 그 기구를 쓰던 사람의 精氣나 恨이 그 물체에 옮겨져 도깨비화한 것으로 본 것이다. 萬物有神이라는 神觀을 갖는 것은 위와 같은 假說에서 비롯된다. 곧 모든 존재에 神鬼가 깃들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신화나 전설, 민담 등에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간직시킨 것이다. 같은 鬼神이라도 吉福災禍에 관련된 山神, 地神, 성주 등은 人間에게 利를 주는 善鬼로서 神佛대상의 神으로서 추앙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民間 信仰의 대상물인 도깨비는 넓은 의미에서 鬼神의 概念에 뿌리 박은 채 그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도깨비는 초인적 靈力을 발휘할 수 있으며 神出鬼沒의 민첩성을 가지

4) 村山智順, 金禧慶 譯, 朝鮮의 鬼神, 서울: 東文選, 1990, pp.86-87.

5) 金守錫, 韓日 文樣美術의 造形的 比較研究, 釜山大學校 藝術論文1集, 1984, p.125.

6) 秦弘燮, 한국의 도깨비, 국립민속박물관 총서 I, 서울: 열화당, 1981, p.23.

7) 임동권, 한국의 도깨비, 서울: 열화당, 1981. pp.18-19.

고 있어 여러 곳에 출현 하기도 하며 그 변화를 헤아릴 수 없다. 힘의 강약으로 인하여 괴수가 있고 단독 또는 무리를 지어 다닌다. 陰鬼이므로 음습한 곳에 살며, 광명을 싫어하여 야음에 활동하며, 새벽에 닭이 울면 제자리로 돌아 간다.⁸⁾ 이러한 도깨비는 다른 鬼類와는 달리 심술이 궂으나 暴惡殘忍하지 않고 단순, 미련하며, 의리를 지키고 勸善懲惡의 이어서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기 전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도깨비는 그 자체의 獸性幽靈이라기 보다 데몬(demon; 귀물)적인 속성과 얼굴을 가지고 있는 자연귀로 괴이성과 공포감을 유발하는 형상과 동물적인 속성을 겸비하고 있다. 기독교의 마귀나 우리나라의 妖怪(여우, 뱀)가 모두 獸性을 지녔거나 꼬리, 이빨 등 짐승적인 속성 때문에 妖怪임이 폭로되지만 도깨비는 妖怪처럼 끝까지 악한 집념을 가졌다기보다는 무서우면서도 어딘가 意思疏通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⁹⁾

2. 鬼面紋瓦의 起源과 그 形像

韓國의 鬼面紋瓦에 施紋된 鬼面紋의 기원에 대하여 中國 古來의 傳統的인 벽사求福의 思想에 배경을 둔 각종 起源論들이 발표되었다. 殷, 周 青銅器의 도철문 起源說, 六朝時代의 神像 起源說, 수당시대의 기두 起源說, 獅子 起源說, 中國의 開國說話에 나오는 蚩尤 匠帥說 등이 있으나¹⁰⁾ 이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넓은 안목에서 사상적 흐름이나 시대적 문화교류를 고려한다면, 이 모든 것이 鬼面의 기원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겠다.

다섯가지 학설 중 韓國 鬼面紋瓦의 기원은 대표적으로 두가지의 설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 도철문에서 기원하였다는 설로서 이는 鬼面의 다음과 같은 점이 도철문과 비슷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힘상국은 얼굴로 해서 보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위압하려는 인상을 받는 점과 表現形式에 있어서도 강조된 부위가 동일하며 左右對稱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도 같다.”라고¹¹⁾ 설명하고 있다.

둘째, 蚩尤 匠帥說로서, “우리 신화의 영웅인 치우장수의 옛모습이 鬼面紋瓦의 얼굴과 꼭 일치하며 또 그런 기와가 中國에서 出土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나라 고유한 신화를 입증해 주는 중요한 유물.”로¹²⁾보고 鬼面紋瓦의 起源을 蚩尤匠帥說에서 찾았다.

필자는 鬼面에 대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학설 중에서 도철문설이 보다 설득력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中國에서는 이미 燕漢 때에 鬼面紋瓦가 出土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에서 出土된 것이 가장 오래 되었다. 이는 문화전파 과정에서 中國의 鬼面紋瓦가 우리나라의 鬼面紋瓦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 임동권, 한국민속학 논고, 서울: 집문당, 1987, p.119.

9) 李符永, 한국의 도깨비, 서울: 열화당, 1982, p.65.

10) 劉安, 李錫浩 譯, 淮南子, 서울: 을유문화사, 1972, p.134.

11) 진홍섭, 전계서, p.26.

12) 조자룡, 내가 만난 도깨비, 뿌리 깊은 나무, 1977.1월호.

둘째, 中國의 鬼面紋瓦는 도철문의 기본형을 따르고 있으며, 특히 樂浪地域에서 出土된 銅器 漆器의 고리장식鬼面은 도철문과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세째, 도철문과 鬼面이 같은 벽사의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점에 착안할 때, 韓國의 鬼面紋瓦에 施紋된 鬼面문의 기원은 12세기를 전후하여 殷代에 유행했던 古銅器 도철문의 상징적 表現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물론 鬼面紋樣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鬼面과 흡사한 용의 얼굴이 도안화 되었을 가능성이나, 불교전래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어떤 紋樣과 摻合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가 없는 지금으로서는 도철문이 鬼面紋과 기본 조형적인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듯하다.)

殷周의 銅器에 유행했던 도철문의 근본 형식은 대면하는 두 마리의 파충류형 蜺龍 혹은 象形(圖1), 鳳形(圖2)의 對稱的 構成秩序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관념적인 獸類顔面紋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圖3) 때로는 虎面으로도 볼 수 있는 현실의 獸面(圖4)도 볼 수 있다.¹³⁾ 이러한 도철문은 周代 이후 漢代에 걸쳐 나타나는 캄마(coma)형의 羽狀紋과 같은 散點紋樣으로 구성되는 것(圖5)을 볼 수 있는데 이같은 推移는 원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모티브에서 발전하여 半瓦當의 동물적 面貌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본다. 이렇듯 도철문은 그 과기스러움이나 벽사적 기능 또는 주로 顔面만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하여금 鬼面의 祖形을 확신하게 한다.

鬼面을 表現하는 초점은 험상궂은 데에 있으며, 험상궂음을 강하게 表現하기 위하여 눈, 코, 입을 강조하는데 이 세 부분이 顔面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머리 위에는 뿔이 들어 있는 것도 있다. 눈알은 半球形으로 크게 뜬 상태로 융기되었고 코는 높게 돌출 되고 콧구멍을 크게 뚫어 들창코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입은 크게 벌려 顔面 下半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左右로는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비롯하여 앞니가 아래 위로 굽게 表現되어 있고 그 외에 귀, 수염, 머리카락 등으로 부수적인 공간을 메우나 때로는 발까지 표현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鬼面의 起源으로 볼 수 있는 殷代 源始祖形에서도 크게 뜬 눈과 그 위의 뿔, 그리고 입은 분명히 表現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이빨이 드러나도록 크게 벌리고 있다. 대체로 顔面만을 나타내지만 때로는 앞발 혹은 앞발에 꼬리까지 있는 全身像을 表現한 경우도 있다.(圖6)

13) 金守錫, 한국적 귀면문양의 조형, 공간, 1979.8, p.59.

圖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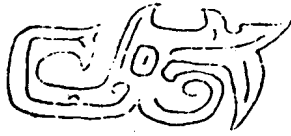


圖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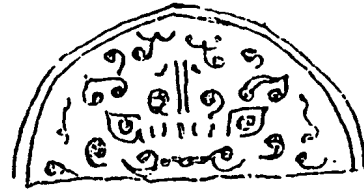
圖3.



圖4.



圖5.



3. 부작위치 및 부분명칭

鬼面紋瓦라고 하면 마루와 사래 끝에 장식한 鬼面紋瓦를 지칭하며 鬼面이 施紋된 대표적인 기와라 할 수 있다. 특히 많이 出土되며 施紋된 鬼面紋樣이 다양한 내림새 막새는 다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내림새 밑을 막은 내림새 막새로 하단을 반원형의 형태로 깎아낸 점이 특징인데, 앞면은 사다리꼴이며 상단은 약간 둥근 것이 보통이다. 둘째 표면은 역시 사다리꼴이지만 하단이 직선으로 잘려 있으며 못구멍이 뚫려 있거나 背面에 고리를 매단 흔적이 있어 사래¹⁴⁾ 끝을 장식하였던 사래 막새로 서까래 막새와 같은 의도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¹⁵⁾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전시대를 통한 분류이고 각 시대에 따른 발견 예는 어느 시대에나 모두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14) 추녀 끝에 잇대어 댄 네모난 서까래.

15) 진홍섭, 전계서, pp.3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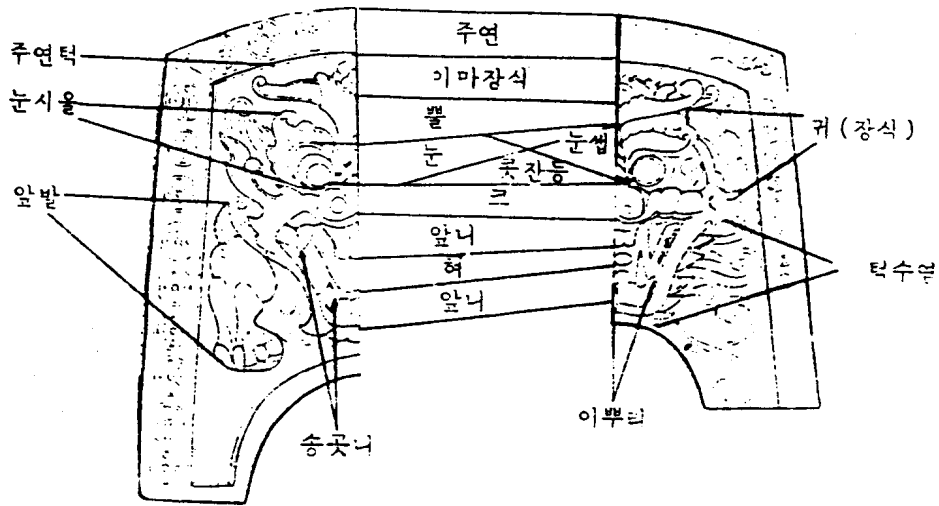


插圖-1 귀면문와의 세부명칭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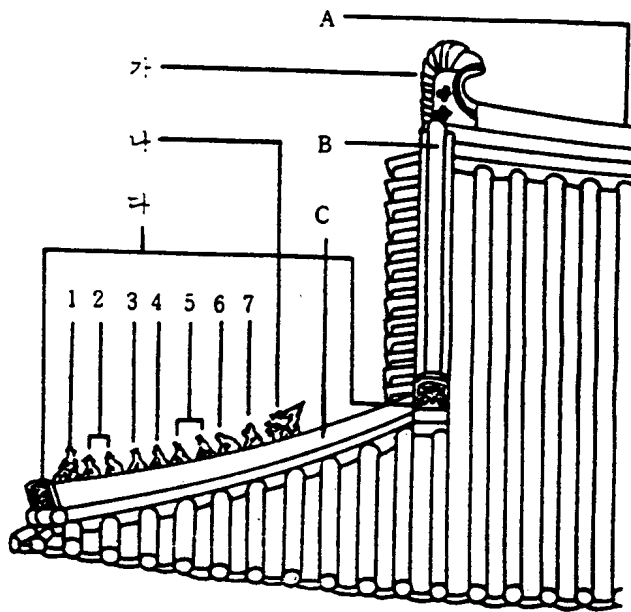


插圖-2 귀면문와의 부착위치 및 세부명칭

- 가.치미(龍頭,鷲頭)
- 나.내림마루용 龍頭.
- 다.鬼面瓦
- A.용마루 B.내림마루 C.추녀마루
- 1.대당사전(大唐師傅)
- 2.손행자(孫行者)
- 3.저팔계(猪八形)
- 4.사화상(沙和像)
- 5.마화상(麻和像)
- 6.삼살보살(三殺菩薩)
- 7.나토두(羅土頭)

16) 임영주, 한국문양사, 서울: 미진사, 1981, p.217의 용례로 삽도-1, 삽도-2을 따랐다.

III 統一新羅 鬼面紋瓦의 形象的 特性

1. 前期

時期는 感恩寺의 創建年代인 神文王 2년(682년경)까지를 범위로하며, 이 年代에서 선을 긋듯이 자를 수 없으나 高구려 및 唐의 影響과 密敎僧들에 의해 表現된 鬼面紋들을 비교하여 前期作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出土된 鬼面紋瓦 중에서 統一新羅 내림새 막새의 原形이나 原形에 가까운 鬼面의 유형을 實測圖나 復元圖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插圖-3의 鬼面紋瓦들이 興輪寺址出土의 것과 慶州 시내 및 出土地 未詳의 것이 몇 점 있다. 統一新羅 전기의 古拙한 단계를 벗어나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잡히기 시작한 단계로 보인다. 이 양식의 특징은 눈 코를 중심으로하는 중앙부위가 주변보다 융기되어 있다. 이마에는 삼각형의 紋樣이 보인다. 이런 類는 雲崗石窟 제8동의 主室 北壁의 鬼面紋과 北周의 石枕(圖6)



插圖-3 흥륜사지出土

에서 보이는 鬼面紋과 많은 유사성이 있다.¹⁷⁾ 삼각형의 이마장식 左右로 두가닥의 끝을 말아 올린 卷紋은 紋樣을 둘러 싸듯이 치솟고 있는데 머리카락을 表現한 것인지, 초기단계의 鬚을 表現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각종의 예들을 비추어 볼 때 鬚의 초기단계로 보인다. 눈썹은 뚜렷한 굴절을 볼 수 없으며 상하 二층으로되어 선단에서 합쳐져 끝이 권상하고 있다. 眼球는 蟹眼狀으로 돌출하고 있다. 콧잔등은 3등어리의 分節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입은 逆梯形으로 나타내고 있다. 입술 표면은 陰刻된 사실적인 表現을 보이며 수염은 左右 각각 3몽치씩의 卷毛形이다. 아래 입술 左右에서 밑으로 내려진 각각 한가닥씩의 陽刻線은 그 아래에도 紋樣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하며 그 형태는 插圖-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로 짐작된다. 周緣은 단순한 珠紋의

형태보다는 한단계 발전한 것이다. 즉 左右에 동심원이 施紋되어 있으며 上周緣은 중앙에 여백을 두고 左右로 唐草紋이 施紋되어 있다.

插圖-4는 慶州 시내 및 四天王寺址, 普門寺址 등에서 出土되었다. 周緣의 表現방법은 插圖

17) 井內潔, “新羅 棟端飾瓦의 展望”, 鬼面紋瓦의 研究, 井內古文化 研究室, 昭和43年,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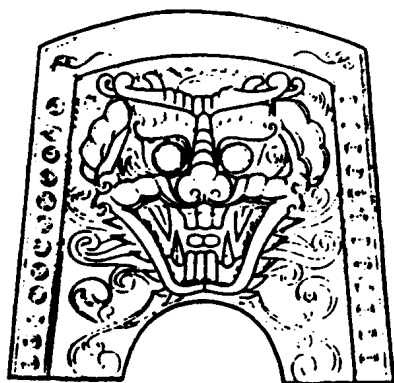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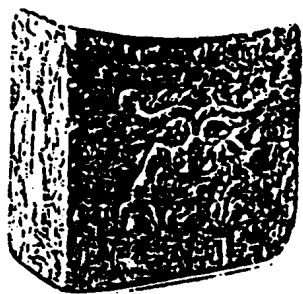
插圖-4 普門寺址出土

-3과 같으며 빨은 感恩寺址 出土 舍利器에 施紋된 增長天王의 腹部(圖7)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빨은 羊角으로 말려있고 빨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콧잔등은 네덜어리의 分節형태이며 밑으로 내려 올수록 덩어리가 커진다. 이마의 양측에서 이마 장식 사이에 鋸齒紋이 보이는데 이러한 기법은 中國 北魏 末期의 鞏縣石窟의 鬼面紋에서 보는 것과 많은 유사성이 있다.¹⁸⁾ 귀가 빨 밑에 가지 크게 나타나 있으며 귀의 表現은 대단히 장식화된 것으로 보인다. 입가에는 鋸齒紋이 있고 수염은 左右 각각 3몽치씩의 渦券紋이다. 아래입술은 양左右로 2가닥씩의 덩굴장식이 있다. 눈, 코 및 頰部를 주변의 紋樣보다 높게 융기시켜 蟹眼狀의 眼球, 半球狀으로 융기한 分節狀의 콧잔등은 鬼面으로서의 表現기법이 취해지고 있는데 插

圖-3의 기법에 상통하는 것이다. 눈썹위의 角狀紋은 插圖-3의 것보다 명확하게 角狀化 되어 말려 있다. 頰部의 紋樣은 독립한 한덩어리의 융기문은 없어지고 渦券 頰髮紋이 되는데 윗입술과 합쳐져 입모양은 자연 變形 逆梯形을 이루게 된다.

插圖-7과 같은 鬼面紋瓦는 統一新羅 盛期까지 널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國立晉州博物館에 소장된 例(圖8)에서 조금씩 변형된 모습을 찾을 수 있으나 鬼面의 表現방법이나 表現의도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晉州博物館 소장의 鬼面紋은 넓이 12cm의 소형이며 上周緣部가 넓고 釘孔은 瓦의 上部에서 背面으로 비스듬히 2개가 나왔다.

圖6.



北周. 石枕의 鬼面紋.

圖7.



新. 感恩寺 舍利器 兩面에 施紋된 增長天王.

圖8.



統. 新. 晉州문화원부근.

가: 12cm 세: 14.4cm 두: 1.5cm

18) 井內潔, 전게서, p.50.

2. 盛期

新羅의 盛期를 보는 견해가 학자마다 다르고 또 보고자 하는 이용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선 鬼面紋瓦의 紋樣을 살핌에 있어서 前期가 끝나는 神文王2년(682년) 경에서 哀莊王7년(806년)까지로 보려 한다. 682년 感恩寺 創建 年代부터 약 120년간은 新羅가 국내외적으로 안정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中國으로부터 文化를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소화한 것을 가장 新羅的인 것으로 만들었던시기로 보고 있다. 806년까지를 下限으로 보고자 하는데는 서로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다.

먼저 金大成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佛國寺와 石佛寺에 관해서는 三國遺史 卷五「大成孝二世父母條」와 朝鮮佛敎通史에 景德王 10년인 751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佛國寺 出土의 鬼面紋에서 보는 紋樣이후 점차 형식화되고 섬약화되어감을 볼 수 있고 창작의욕도 잃어간다. 그후 哀莊王3년(802년) 海印寺가 창건되고 哀莊王7년(806년)에는 새로 절을 짓는 것을 금하고 다만 수리만 허용하였다는 귀절이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大寺院의 役事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大寺院의 役事가 중단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佛敎美術도 쇠퇴함은 당연한 이치이며 큰 건물의 鬼面紋 내림새 막새도 퇴로의 길을 걸었다.

이 시기 紋樣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으로 이마부위가 크게 확장되어 이마장식이 화려해지고 紋樣이 커진다. 눈, 귀, 입의 기본적인 요소가 아주 사실적 또는 장식화되어 表現되고 있으며 녹색 鬼面紋瓦의 출현을 보게된다. 盛期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鬼面紋 내림새 막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挿圖-5 高仙寺址出土

挿圖-5의 鬼面紋瓦가 高仙寺址에서 出土 되었다. 周緣部에는 唐草紋이 施紋되어 있고 이마장식의 寶相華紋은 火形의 변형된 가지가 있는 뿔과 연결되어 있다. 입술주위 수염의 渦卷紋이 없어지고 火焰紋의 불꽃 같기가 타오르듯 表現된 수염이 특이하다. 寶珠나 수염모양이 西域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입 속에서도 혀에서 부터 左右로 각각 3가닥씩의 陰刻線이 뻗어나와 있다. 입술 주위의 火焰紋은 前期 感恩寺 出土 舍利器의 增長天王 腹部에 施紋된 鬼面紋(圖7)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눈썹은 다른 鬼面紋瓦들에 비해 矧錐形의 單線으로 表現되어 있고

그 중앙부는 약간 굴곡되어 있다. 前代의 것에 비하여 紋樣의 구성은 단순한 陽刻線과 새로

운 요인의 첨가가 혼합된 것이다.



插圖-6 慶州出土

插圖-6은 南潤寺址, 仁旺理, 普門寺址, 出土地未詳로 점이 알려져 있다. 周緣의 紋樣은 동심원 테두리안에 ⊗字花紋을 배열해 놓았다. 눈망울의 주름을 위 쪽으로 잡고 있어 눈동자가 쏠리고 있는 느낌을 준다. 눈주위에는 끝을 부드럽게 말아올린 渦券形의 물결무늬가 있고 빨도 끝이 말린 羊角形이며 빨이 합쳐지는 부분은 빨의 외피처럼 도톰하게 올려 몇겹의 節狀문이 施紋되어 있고 그 위에는 山形花瓣紋이 表現되어 있다. 윗 입술 左右 끝에서는 插圖-5에서 처럼 火焰形의 紋樣이 눈 옆으로 뻗어나 있는데 위치나 表現方法으로 보아 귀를 도안해 놓은 것 같다. 혀는 사실적으로 表現해 놓았다. 이와같이 눈망울의 주름이나 눈동자가 안으로 모여 쏠리고 있는 것, 혹은 입술 및 눈 주위의 火焰形의 表現方法이나 혀의 사실적 表現과 같은 것은 雁鴨池나 慶州市內에서 出土된 것(圖9,10)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圖 9,10은 周緣周에 四瓣小花를 배열하였고 눈 주위에는 타오르는 듯한 불꽃모양

또 이마장식이 統一新羅 盛期에 유행한 2단으로 된 寶相華紋系를 전용한 점 등 거의 유사성을 보인다. 특히, 이런 류가 일본 新當寺址에서 出土된 鬼面紋瓦에도 있어 주목을 끈다(圖11).¹⁹⁾ 비록 입 아래 부위는 간략화되었지만 統一新羅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鬼面紋瓦의 가장 큰 특징은 앞발이 表現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 입술 양 옆에 膨隆狀의 앞발은 唐代의 擬人化된 준거형의 기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고 統一新羅의 수막새에 施紋된 有翼獅子紋에서도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表現의 원초적 시발점은 역시 도철문계의 紋樣에서 찾을 수 있다. 다리의 표면에는 세로로 그어진 몇 가닥의 陰陽線에 의해 獸爪가 表現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類는 中國에서 統一新羅를 거쳐 최근 일본의 토오노기 古墳出土의 馬具類에 透彫된 例의 장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어 앞발 혹은 四肢를 表現한 鬼面紋樣식의 전과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⁰⁾ 그리고 아래 입술 양 옆으로 커다란 뭉치가 마치 앞발을 表現한 것 같은 例가 全南大 博物館 소장품(圖12) 및 大邱大 博物館 소장품(圖13)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앞발의 表現기법이 매우 치졸하며 鬼

19) 藤澤一夫, “日本の 鬼面紋屋瓦”, 面紋瓦の 研究, 井內古文化 研究室, 昭和 43年, p.80.

20) 井內潔, 전게서, p.54.

面の表現수법도 시기가 매우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圖9. 統.新.雁鴨池出土. 가:25cm
세:24cm 두:4cm

3. 後期



圖10. 統.新.雁鴨池出土.
가:21cm 세:28cm
두:3.4cm



圖11. 日本.新堂慶寺址出土

佛國寺 創建을 前後하여 936년 고려건국까지 100여년간의 혼란기를 말한다. 海印寺 創建 이후 절을 짓는 것을 금지하고 단지 수리만을 허가하여(哀莊王7년, 806), 大寺院의 役事가 이루어지지 않아 佛敎文化가 융성하지 못했던 것에도 영향이 있었지만 국내적으로 金憲昌의 난(憲德王14년;822년)과 그의 아들 梵文이 漢山에서 반란을 일으키고(825), 淸海鎭의 張保皐가 文聖王8년(846년)에 난을 일으키며, 또 農民의 난으로 전국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결국 後三國의 시대로 분열을 일으킨다. 국내적 혼란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唐은 末期에 黃巢의 亂(875년) 등이 혼란을 일으켜 907년 唐이 멸망하게 되고, 統一新羅는 국내외적으로 불안기를 맞게된다. 그리하여 前期나 盛期의 文化的 創意性은 보이지 않으며 더구나 對外的 文化的 교류마저 활발하지 않은 시기로 문화는 정체되고 퇴보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비단 瓦當 뿐만아니라 그 밖의 각종 紋樣은 물론 鬼面紋瓦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점은 귀와 뺨, 이마 부분의 각종 表現方法이 佛國寺 鬼面紋瓦 이후 극도로 퇴보한다.



插圖-7 雁鴨池出土

비록 녹유계, 흑유계 鬼面紋瓦의 제작은 계속되어 盛期의 화려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국내외적으로 기울어진 문화의 衰退는 감당할 수 없었음이 이들 鬼面紋瓦에서도 역력히 보인다.

插圖-7와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雁鴨池에서 5점, 出土지 未詳 3점 및 破편 다수가 出土되었다. 周緣의 紋樣은 상단과 측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경계선은 陽刻線으로 테를 지웠다. 상단의 양측은 唐草紋으로 처리했고 측단은 주문을 배열하였다. 주연부에 2종류의 紋樣이 施紋되는 것은 統一新羅 前期에서도 볼 수 있었으나 그 경계를 테두리로 쳐 구분하지 않았다. 이마부위는 盛期 보다 많이 좁아졌고 뺨은 2개의 사슴뺨형이 위로 치솟아 상단周緣

턱에 맞닿아 있고 前例들에 비해 치졸하며 퇴화하였다. 눈썹 상단은 곧게 뻗어 나가다가 말려 있으며 하단은 조금 굴곡되어진 탁상형이다. 귀는 前例에서 볼 수 있는 형이나 약화되고 퇴화되어 우렁이 껍질같은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유형이 後期 鬼面紋瓦의 가장 특징적 요소로 나타나게 되며 고려 이전 까지 表現되고 있다. 한편 눈과 눈썹에서 插圖-3과 유사한 특징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다. 즉 눈썹과 뺨 사이에는 山岳紋이 施紋되어 있으며 아래 입술 표면에는 2~3중의 陰刻線으로 사실적 表現을 하였고 입술 左右에는 3뿔음식의 渦券紋이 그것이다. 左右 한가닥씩의 唐草덩굴은 盛期 이후 자주 表現된 방법이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추정되는 鬼面紋瓦(圖12,13,14)는 周緣의 表現방법이나 눈, 코, 귀, 입, 수염 등의 수법은 같으나 뺨은 두툼하고 몽땅해 졌으며 이마 장식은 약화된 寶珠가 施紋되어 있다. 이들은 같은 형식에서 출발되어 졌으며 아직은 이러한 類에서는 녹유 및 흑유의 鬼面紋이 보이고 있어 後期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鬼面紋瓦로 추정된다.



插圖-8 出土地未詳

插圖-8과 같은 유형의 鬼面紋瓦는 插圖-7 이후 1내지 2점씩 따로 出土되었다. 이러한 類例는 插圖-7에서 영향을 받은 계통으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插圖-7 이후 鬼面紋이 급격히 퇴화되어 表現이 치졸해 짐으로서 鬼面 본래의 목적인 기괴함과 위압적인 요소들이 점점 소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12. 統·新·雁鴨池 出土
가 : 24cm
세 : 24.5cm 두 : 5cm



圖13. 統·新·雁鴨池 出土
가 : 24cm
세 : 29.5cm
두 : 3.9cm

한편, 이마 부위에는 山岳紋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도 있으나 마침내는 모든 부위를 굵은 면으로 表現하여 火焰形의 불꽃이 뿔처럼 돌아 이마 全面을 메운 것(圖15), 또 사실적인 陽刻線이나 陰刻線은 찾아 볼 수 없고 융기된 덩어리

로만 鬼面을 약화시켜 놓은 것(圖16) 등으로 급격한 쇠퇴를 맞는다. 이러한 類의 가장 큰 특징은 여태껏 보아왔던 縱長形의 鬼面紋 내림새 막새가 갑작스런 형태변화를 하여 橫長形으로 바뀐다는 데에 있다. 이들은 모두 내림새 막새중 아래막새 용만으로 出土되고 있는

데 종전의 縱長形 내림새 막새를 부위에 따라 절단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橫長形의 사래막새용 鬼面紋瓦로 제작한 것 같다.

圖14



統·新·雁鴨池 出土

가 : 23.4cm

세 : 19.8cm

두 : 3.4cm

圖15



統·新·未詳. 가: 21.2cm

圖16



統·新·臨海殿址出土.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統一新羅代의 鬼面紋瓦중에서 특히 내림새 막새는 그 예가 다른 것에 비해 많고 다양하여 어느 정도의 분류를 가능하게 했으며, 다양한 紋樣을 비교 검토할 수 있어 韓國의 鬼面紋瓦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중엽에 걸쳐 梁과 晉의 문화와 접촉했고 唐과도 교류를 하여 韓國的인 鬼面紋瓦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鬼面紋은 기와 뿐만 아니라 건축의 여러 곳에 장식되어 나타난다. 즉 문고리 장식, 馬鐸, 硯脚 등에 자주 施紋되어 나타나고 있어 벽사문으로서의 鬼面紋이 王宮建築, 佛教寺院 외에도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鬼面紋 및 鬼面紋瓦도 고려로 넘어가면서 쇠퇴기를 맞아 紋樣의 치졸함을 역력히 볼 수 있고 그 생명의 한계를 맞게 된다.

IV. 鬼面紋瓦의 特性

1. 造形的 特性

統一新羅 내림새 막새의 鬼面은 觀念的 形象이 寫實的 獸面의 형태로 구체화된 表現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는 靈獸나 神獸思想이 만연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은 많은 美術品에서 裝飾紋樣으로 나타난다. 殷, 周시대의 도철문을 비롯하여 唐代의 문헌에 나타난 白象, 白澤, 白狼, 玉馬, 龍馬, 飛鱗, 飛龍, 三角獸, 赤熊 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統一新羅의 鬼面에서는 角形이 물소뿔모양으로 나타나 장식성적 요소를 보여주나 이것은 불교와 함께 西域의 文化가 中國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온 흔적으로서 四天王像塼의 鬼面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다.²¹⁾ 周緣에는 주술적 의미를 지닌 聯珠紋, 雲紋, 唐草紋 등이 나타

21) 황호근, 한국문양사, 열화당, 1978, p.217.

나며 측면에도 波狀曲線에 의한 화려한 唐草紋을 施紋하고 있다. 紋樣은 繪畫의인 것과 彫刻의인 것, 裝飾의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統一新羅 내림새 막새의 鬼面紋은 彫刻의인 요소가 짙다고 하겠다.

2) 象徵的 意味의 變化

鬼面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古代人의 美術思想은 오래 살겠다는 長生思想과 보다 잘 살겠다는 福의 사상으로 귀결된다. 人間은 長生多福의 궁극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나는 과정에서 큰 적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적이 魔인 것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는 魔와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人間의 숙명적인 大魔鬪爭에서 생긴 사상이 벽사사상이다.”²²⁾ 이러한 벽사사상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생긴 것이 鬼面이다. 벽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형상을 통해 악령을 쫓아 내었다. 그러한 토속신앙에 의한 鬼面의 表現은 일찌기 中國의 殷周代에 유행한 각종 靑銅器 및 裝飾에서 鬼面性의 도철문이 많이 施紋되었고 이후 이러한 도철문계紋樣이 瓦當에 전용되었으며 상징적인 형상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鬼面으로서의 형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벽사적 의미의 鬼面紋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형상들인 獅子, 虎, 牛, 羊, 龍, 원숭이, 사슴 등 온갖 짐승의 모양에서 뿔, 입, 치아, 갈기 등을 부분적으로 본떠 기괴한 형상을 만들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느낌도 여러가지로 나타나는데 막연히 무서운 느낌을 주는 鬼面像이 있는가 하면 虎形, 獅子形, 犬形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있다. 이러한 형상은 佛敎 및 道敎의 영향을 받고 風水圖讖 및 巫俗信仰으로 벽사, 裨補의 기능을 수행한 한반도의 古代信仰과 習俗을 하였다. 그것은 테리오모르피즘 (Theriomorphism; 獸熊神觀)에서 유래하는 神聖과 벽사의 獸像이 鬼面으로 발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²³⁾

成俔의 備齊叢話에 「가지를 합하여 빗자루를 만들어 덧문을 마구 두들기며 북과 바라를 치면서 대문 밖으로 쫓아낸다. 이것을 일컬어서 放枚鬼라 한다. 또 이른 새벽에 그림을 문에 붙이니 處容, 角鬼, 종규²⁴⁾, 畫鷄, 畫虎 등속이다.»란 귀절이 있다. 이와 같은 뜻으로 漢代의 四神紋 瓦當을 방향에 따라 추녀 끝에 올리는 이유도 墳墓의 玄室壁을 따라 四神을 그리는 것과 같은 의도로 鬼面紋瓦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적으로 鬼面 하나를 놓고 살펴보더라도 크게 벌린 입사이로 사납게 생긴 송곳니와 앞니를 강조하며 튀겨나올 듯한 蟹眼狀의 눈알, 곤두선 갈기나 뿔, 수염이 건축물의 상징적 과수병으로서 손색이 없다. 즉 용마루에 치미를 올리고 隅棟에 雜像을 얹은 사람들이 벽사의 뜻으로 鬼面을 이용하였음을 곧 이해할 수 있다. 특히 佛敎에서도 鬼面紋 및 鬼面紋瓦가 사용되었음은 四天王像에서 악귀를 밟고 있는 彫像의 本義 와도 상통한다.

22) 조자룡, 삶을 위한 미술, 서울평론, 서울 신문사, p.78.

23) 이상일, 한국의 장승, 서울, 열화당, p.31.

24) 중국 당나라 현종이 꿈에 본 형상을 吳道子를 시켜 그린 것으로 疫鬼, 마귀를 쫓는 신.

이상의 역사적 의미로서의 鬼面紋瓦가 統一新羅에 와서 갑자기 다량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것은 三國을 統一시킨 文武大王의 遺言²⁵⁾에서도 볼 수 있듯이 護國意志의 像 즉 護國佛敎에 힘입어 國家의 安寧을 위한 神像으로서 宮闕이나 佛敎寺院에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이러한 역사적 機能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건축물의 곳곳에 사용되어 짐에 따라 裝飾的인 機能과 함께 추녀와 사래끝의 빗물을 막아주는 防水의 機能도 증대되었다.

화려한 統一新羅의 문화와 더불어 鬼面紋瓦도 다양해지고 화려해졌다. 細部的인 紋樣에서도 알 수 있지만 특히 鬼面紋은 瓦와 塼은 물론이고 문고리, 神將像, 馬具 및 장신구, 벼루 발, 金銅飾履 등의 유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鬼面 자체의 意味를 가졌다기보다 裝飾用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이들 鬼面紋들을 순금으로 판본따든가, 눈알에 유리옥을 박는 등 매우 裝飾化되어 짐으로 해서 시대를 내려올수록 鬼面紋이 역사기능의 本來 意味와는 상관없는 裝飾的인 機能으로 변화되어서 여러곳에서 개인의 기호에 의해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25) 일연, 전게서, “나는 來世에 護國大龍이 되어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다.” p.71.

IV. 結論

統一新羅의 鬼面紋瓦는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前無後無한 性狀속에서 新羅特有의 正體된 양식과 圓속한 조각술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당시 國토를 統一하고 高조된 佛敎의 中興에 힘입어 護國의 守護神으로서 多樣하게 사용되었으며 그 用例 또한 多樣하다.

민속문화재의 多樣한 鬼面형상 中에서도 造形性이 가장 뛰어나며 신체의 變化를 直接적으로 表출하는 顔面만을 대상으로 表現한 新羅의 내림새 막새 鬼面紋瓦를 高찰해 本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鬼面紋의 起源은 中國 古來 原始宗敎의 呪術의 信仰과 벽사求福의 思想에 바탕을 둔, 西曆紀元前 12세기 前後인 殷, 周의 古銅器에 施紋된 도철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뒤어 나올 듯한 蟹眼狀의 눈알, 크게 벌린 입사이로 드러난 송곳니, 거대한 뿔과 때로는 앞발이 表現된 것 등은 鬼面이 表現하고자 하는 요소를 鬼面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虎形, 獅子形과 같은 獸面形을 부분적으로 첨가하여 實像化한 것으로 寫實的이며 生動感을 준다. 이러한 벽사의 意味로 시작된 鬼面紋은 中國의 雲崗, 龍紋, 響堂山 石窟 등에 나타난 鬼面紋과 漢의 影響을 받은 잠재된 문화속에 韓國 鬼面紋瓦로서의 기틀을 맞이하고 이후 百濟 및 新羅에 影響을 주며 統一新羅에 이르러 내림새 막새의 鬼面紋은 화려한 多樣성으로 절정을 이룬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鬼面紋瓦의 造形的 特徵이 그 시원을 中國에 두었으나 全時代를 통하여 적절한 創意性에 의하여 transformation을 이루었음을 말한다.

造形的인 面에서의 鬼面紋瓦는 原始美術의 특징인 左右對稱에 의한 정면성을 보이되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지는 않아 미묘한 動的 질서를 만들어 내고 있다.

鬼面紋은 그 형태 성질상 괴기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음침하고 혐오스런 표정에 빠지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新羅의 鬼面紋瓦에서는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新羅인의 낙천적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神話的 입장에 입각하여 모든 일상과 현실에서 神, 鬼神, 人間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된 까닭에 鬼面의 제작에서도 보다 擬人化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新羅의 鬼面紋瓦에서 보는 일정한 정형 양식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相異한 형상처리는 그 類例마다 새로운 면모의 造形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裝飾의 공예의장의 타성적인 踏襲이 아니라, 當代 匠人들의 개성적 造形意志를 보여주는 시대적 소산이라 하겠다. 형태의 線的인 재구성과 섬세하면서도 힘찬 조형기법, 적절한 여백의 처리, 강약에 따른 긴장감 등은 鬼面의 本質的 意味를 충족시키면서도 훌륭한 예술품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裝飾의인 紋樣의 한 측면에서 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다루어지고 근원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參考文獻

- 高大民族文化研究所, 韓國民俗大觀, 서울; 高大出版部, 1982.
- 金東賢外, 新羅의 기와, 韓國建築史大系V, 서울, 東山文化社, 1976.
- 金誠龜, 統一新羅時代의 瓦塼 研究, 考古美術162,163호, 1984.
- , 多慶瓦窯址 出土 新羅瓦 小考, 美術資料33號, 1983.
- 金守錫, 韓國 鬼面文樣의 造形, 空間46號, 1979.8.
- , 韓日 紋樣美術의 造形的 比較研究, 釜山大藝術論文集, 1984.
- 金元龍, 韓國 考古學 概說, 서울; 一志社, 1988.
- , 韓國 古美術의 理解, 서울대 출판부, 1990.
- 申榮勳, 韓國의 살림집 상하, 서울; 悅話堂, 1981
- , 한옥과 그 역사, 서울; 에밀레 美術관, 1975.
- 林永周, 韓國紋樣史, 서울; 미진사, 1983.
- 張慶浩, 統一新羅 時代의 宮殿建築, 考古美術 162.163號, 1984.
- 張素賢, 動物의 美術, 서울; 悅話堂, 1979.
- , 中國의 美術, 서울; 서울문화사, 1977.
- 趙子龍, 鬼面 僻邪美術, 傳統文化, 1988, 12月號.
- , 내가 만난 도깨비, 뿌리깊은 나무, 1977.1月號.
- , 삶을 위한 美術, 서울 신문사, 1980.
- 秦弘燮外, 韓國의 도깨비, 서울; 悅話堂, 1981.
- , 興輪寺址 出土瓦塼, 考古美術 59號, 1965.
- 村山智順, 金禧慶譯, 朝鮮의 鬼神, 서울; 동문선, 1990.
- 黃壽永, 新羅 鬼面紋瓦의 新例, 考古美術 24號, 1962.
- , 感恩寺址 鬼面瓦, 考古美術22號, 1962.
- , 慶州皇龍寺址의 鬼面, 考古美術23號, 1962.
- 文化財 管理局, 雁鴨池, 1980.
- , 高仙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1977.
- , 佛國寺, 1976.
- , 皇龍寺, 1982.
- 井內古文化研究室, 鬼面紋瓦의 研究, 昭和43年.
- , 朝鮮瓦塼圖譜 I-VII, 1976-1979.